

폴란드,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늘어

□ 점차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 늘어

-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극심한 내수경기 부진에 시달리면서 폴란드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, 경기부양을 놓고 중앙정부와 중앙은행간 책임공방도 가열되어 왔음.
-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산업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최근 발표된 교역통계도 양호한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, 폴란드 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음.

□ 양호한 수출실적 기록

- 지난 10월 31일 폴란드중앙은행(NBP)은 폴란드의 금년도 1~9월중 수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25%나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음. 같은 기간 중 수입도 전년동기 대비 19% 증가한 378억 달러에 달하였음.
- 폴란드의 주된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18개월 동안(2001. 4. 1~2002. 9. 30) 폴란드는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실적을 올렸는데, 이는 주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.

- 금년 1~8월중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약 30%나 증가하였고, 같은 기간 동안 스웨덴과 프랑스에 대한 수출도 각각 전년동기 대비 40%와 21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EU 지역 내에서도 수출실적 차별화가 나타났음.
- 이 같은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폴란드의 수출기업들이 최대 수출시장인 독일의 경기침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며, 현재와 같은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
□ 내수경기도 회복추세로 반전

- 한편, 꾸준히 늘고 있는 수입과 더불어 일련의 지표들은 폴란드의 내수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음.
- 우선 2001년 2/4분기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이 금년 6월부터 상승세로 반전되더니 7월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였음. 금년도 2/4분기는 2001년 2/4분기보다 0.4% 적었으나, 6월부터 산업생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3/4분기 중에는 전년동기 대비 2.8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특히 9월 한 달 동안에는 전년동기 대비 6.8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.
- 다음으로 금년도 3/4분기 중 소매업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3.9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운수업 및 통신산업 부문의 최근 성장세 역시 내수경기의 회복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. 한편, 최근 폴란드의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, 현재 기업들은 경기전망을 금년 초에 비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생산량을 증대시킬 계획으로 조사되었음.

- 이러한 각종 데이터는 조만간 발표될 3/4분기 중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. 1/4분기와 2/4분기의 GDP 성장률은 각각 0.5% 및 0.8%에 그쳤으나, 콜로드코(G. Kolodko) 재무장관은 3/4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2%로 발표하였음.

□ 경기활성화 정도는 독일 경제의 회복에 달려

- 2/4분기 말까지 그 추세가 다소 불분명했던 각종 경제지표들이 3/4분기 들어 뚜렷한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, 폴란드 경제는 현재 본격적인 회복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됨. 특히, 폴란드 경기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민간 소비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내년도 내수경기의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1.8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, 내년에는 2.8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이 무난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EU 경제의 견인차이자 폴란드의 최대 수출시장인 독일¹⁾의 경제회복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.
- 한편, 수출입은행 프랑크푸르트 사무소에 따르면, 독일 경제는 아직도 취약한 상태에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나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음. 특히, 독일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금년도 0.4%에서 내년에는 1.4%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전문연구원 오경일(☎3779-6646)

E-mail : OKI1122@koreaexim.go.kr

1) 2001년 기준 폴란드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독일(34.3%), 이탈리아(5.4%), 프랑스(5.4%), 네덜란드(4.7%) 등임.